문현공 교수의 죽음학과 불교 ❷ 죽음이란 무엇인가



▶한줄요약
의 · 과학 발달따라 변화해 온 육체의 '죽음' 개념, 이젠 영적 영역 확장할 때다.

죽음의 정의, 마음 영역 확장하라



현대사회의 죽음 정의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을 생각하면 삶의 끝, 종말, 극락, 천국, 내세, 잠, 슬픔, 불안, 공포 등 죽음과 연결된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른다. 사실 죽음이란 말은 누구나 다 알지만, 막상 죽음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명확하고 신속하게 대답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죽음을 알아가는 첫 단계 혹은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정의를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죽음의 정의'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定義)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 단어 등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이며 보통 간결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어떤 단어나 의미가 궁금할 때면 사전을 뒤적거린다. 죽음 또한 마찬가지다. 죽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정의를 알아보는 것이 시작이다.

사실 죽음은 그리 어렵지 않다. 죽음을 간단히 정의하면 '생물의 생명이 끝난 현상'일 뿐이다. 생물은 '살아있는 어떤 것'이며, 생명은 어떤 것이 '탄생하고 살아가다(生), 수명(壽命)이 끝난 것'이다. '생(生)'이라는 글자에는 '탄생' 뿐 아니라 '살아감'의 뜻이 함께 있으며 '명(命)'은 '수명'으로 '살아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생명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어느 기간 동안,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를 일컫는다. '한 생명이 태어나 살다가 그 기간이 끝난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 죽음의 정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삶이 지속되는 기간'이며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드러낸다.

보다 상세히 죽음의 정의를 알아보면 죽음의 종류는 크게 자연사와 외인사로 나뉜다. 자연사는 질병을 얻거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가 쇠약해져 사망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죽음이다. 반면에 외인사는 자동차 사고, 재해, 살인처럼 어떤 사건이나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운 죽음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음이 급작스럽게 앞당겨진 경우들, 자살, 타살, 사고사 등이 외인사의 예이다. 하지만 자연사든, 외인사든 공통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원인 결국 육체의 문제로 귀결된다. 사망의 원인으로는 장기 손상, 질식, 심장이나 폐기능 정지, 실혈(失血: 다량의 혈액 상실) 등이 있다.

보통 현대 사회의 죽음은 의학적 정의를 기준으로 삼는다. 의학적 죽음 정의는 심폐사, 뇌사, 세포사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심폐사는 말 그대로 심장과 폐 기능이 정지된 것, 뇌사는 뇌 기능이 멈춘 것을 말한다. 세포사는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인 세포의 죽음을 뜻하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주요 장기인 심장, 폐, 뇌 등의 기능이 정지하면 생명 활동이 중지되고 이후 세포들이 죽음에 이른다. 심장이나 폐가 멈추었다고 즉시 모든 세포가 사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 판정 이후 각막, 뼈 등의 장기이식이 가능하다.

죽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호흡과 심장박동의 정지로 결정되었다. 심폐기능이 멈추면 맥박, 혈류, 숨이 멎고 이후 위장, 간과 같은 다른 모든 인체의 생체기관들의 작동이 멈춘다. 그러나 폐과 심장이 멈춘 것이 죽음이라고 단순히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호흡 정지와 심장의 정지 중 어떤 것이 우선인가 하는 문제는 과거에 쉽지 않은 고민이었다.

죽음의 판정이 심장사로 자리 잡으면서 사망을 판정하기가 간단해지는 듯했으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 의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죽음의 기준이 새롭게 생겨났다. 인공호흡기, 인공심장개발 같은 의과학의 발달은 인간이 심장과 폐 등 인체를 자발적으로 컨트롤하는 '뇌'의 도움이 없이도 생존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의과학의 발달은 '뇌사'라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죽음 기준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뇌가 죽으면 인간은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상실한다. 첫째는, 소뇌와 뇌간(brainstem)에서 수행되는(호흡, 맥박 등을 지속시키는) '생명 유지 기능' 상실이고 둘째는, 대뇌피질에서 수행되는(사고나 감각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 기능' 상실이다.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뇌간에서 수행하는 자율적인 생명 유지 기능이다. 우리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숨 쉬는 것을 깜박했네' 또는 '심장을 뛰게 해야지'라고 마음먹지는 않는다. 뇌의 기능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도 호흡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데 뇌사는 이러한 기능이 중지된 것이다. 호흡은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심장을 멈추거나 다시 뛰게 할 수는 없다. 뇌간의 기능은 우리 의식의 통제를 넘어선다. 호흡, 맥박, 혈압 등 생명 유지에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뇌간이 파괴되면 뒤이어 자연스럽게 호흡, 심정지로 이어지고 결국 심폐사하게 된다.

육체적 영역의 죽음 개념
의학 발달로 새 개념 도입
영적 죽음의 정의 필요해

그러나 인공호흡기 같은 생명연장장치로 인해 인위적인 생명 유지가 가능해지면서 뇌사라는 새로운 죽음의 기준이 탄생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현대의 죽음 정의는 심장과 폐, 뇌의 비가역적(非可逆, irresversible) 손상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정지이며, 죽음은 육체적 영역에 주로 국한되어 있다.

불교의 죽음 정의

의학적 죽음 정의가 현 사회의 기준이긴 하지만 죽음을 완벽히 정의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학적 정의는 주로 육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인간은 오로지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보는 죽음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초기 불교 경전인 〈상윳따니까야(Saṃyutta Nikāya)〉에서는 다음과 같이 죽음을 정의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러 종류의 중생들의 없어짐, 옮겨감(cavanatā), 파괴, 소멸, 죽음, 생명의 끝, 쌓임의 파괴(khandhānaṃ bhedo), 신체의 버림, 생명 기능의 단절, 이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경에서는 죽음을 의학적 정의와 유사하게 생명과 신체기능의 파괴나 중단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옮겨감(cavanatā)'과 '쌓임의 파괴(khandhānaṃ bhedo)'에서 불교의 특색이 드러난다. 옮겨감이란, 불교적 윤회관을 보여주는 말로 현생에서 내생으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쌓임의 파괴'는 '오온(五蘊, pañca khandha)의 파괴'를 의미하는데, 특히 이 부분이 불교의 죽음 정의를 잘 드러내는 지점이다. 한역 경전에서도 죽음의 정의를 오온과 연결지어 정의하는데, 〈증일아함경(增壹阿含)〉에서는 "죽음이란 다섯가지 결합이 나누어져 오온[五陰]을 버리고, 명근(命根)이 끊어져 파괴된 것이다"라고 말하며 죽음을 색 · 수 · 상 · 행 · 식의 결합이 끊어져 생명 기능이 파괴된 것이라 정의한다.

〈맛지마니까야(Majjhima Nikāya)〉에서도 "죽음이란 수명(āyu), 온기(usmā), 식(viññā)의 해체이다"고 죽음을 정의한다. '수명'은 생명의 지속 기간, '온기'는 체온을 뜻하며 이들은 육체의 영역에 있다. 수명은 불교의 업사상, 인과법과 연결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수명을 단축하는 업을 지으면 생존기간이 짧아지고 장수할 업을 지으면 천수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체온의 상실은 현 사회의 심폐사처럼 당시 상황에서 죽음을 판별하는 육체적 영역의 기준일 것이다. 수명, 온기, 식 중에서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식(識, viññā)이다. 오온의 요소 중 하나인 식은 마음의 영역에 있다. 이처럼 불교는 식과 오온을 죽음과 연관 지어 정의하는 특징을 가진다.

어떤 대상을 마주하고 느낌, 관념, 의도 같은 마음 작용이 일어나기 전 선행되는 요건은 대상을 감지, 식별, 판단하는 인지 작용이다. 인지 작용과 부합되는 불교 용어는 '식'이며 이는 인지(cognition), 의식(consciousness)으로도 표현된다. 다시 말해 식은 마음 작용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중추인 것이다. 식을 통해서 괴로움, 즐거움 등의 느낌, 의도나 의지 등의 후 단계가 진행된다.

불교는 마음을 다루는 종교이자 철학인데, '식'은 무명에서 시작해 삶과 죽음, 인간 고통의 생성과정을 밝히는 '십이연기(十二緣起)'의 12단계 중에 세 번째에 위치하며 또한 식은 유식불교에서 인간의 인식작용을 안 · 이 · 비 · 설 · 신 · 의 육근(六根)과 관련지어 육식(六識: 안식 · 이식 · 비식 · 설식 · 신식 · 의식)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식은 인간의 마음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불교적 용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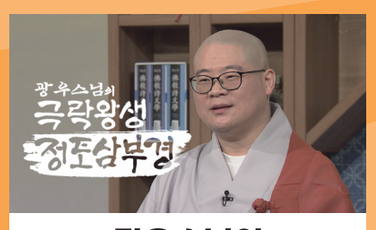
타종교나 사상에서는 죽음이 육체와 정신의 분리라고 설명하면서 육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영혼(soul), 정신(spirit)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같은 단어들에 식의 일부 의미가 연결될 수도 있다. 불교적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윤회라는 바다 위에서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파도와 같다. 무명이 타파되기 전까지 끝없는 순환을 반복하면서 죽음과 탄생은 반복된다. 고통스러운 죽음은 1회로 끝나지 않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버려지고 썩어져 자연으로 돌아가는 육체 말고 윤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는 영혼, 귀신이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덧붙여, 불교에서는 무아(無我)를 강조하며 영원불변의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복되는 죽음, 윤회란 '식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불교의 죽음 정의에서는 '식'과 '오온'을 함께 다루는데 오온 중 육체적 요소는 색 하나뿐이며 4가지는 모두 마음의 영역에 있다. 따라서 불교적 죽음 정의는 육체보다는 마음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죽음 극복의 실마리 또한 '마음'에서 찾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불교에서도 죽음을 생명 활동의 중지, 체온의 상실로 정의하긴 하지만 마음에 비중을 두고 정의하고 있다는 점은 현 사회에서 죽음을 심폐사, 뇌사와 같이 육체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과는 대비된다. 보다 완벽한 죽음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의학적 정의와 불교적 정의를 함께 아울러 육체와 마음 모두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죽음의 정체를 알아가는데 시작이 되는 것은 정의를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정의(定義)란 어떤 존재를 명백히 밝혀 규정함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간결한 표현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간결하게 어떤 존재를 규정하려 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불교의 제행무상(諸行無常)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존재의 정의 또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생성과 소멸, 탄생과 죽음이 반복되는 거대한 순환구조를 가진 자연의 섭리에 걸맞는 참 삶일까. 죽음은 오로지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현상일까. 죽음의 정의를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 삶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져준다.

〈동국대 응용불교학 전공 조교수〉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기 2566년
BTN 불교TV
개편프로그램안내
더 알차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광우스님의 극락왕생 정토삼부경
매주 (월, 화, 수) 07:30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매주 (월) 09:30, 21:30 / (화) 23:25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 문광스님
매주 (월, 화, 수) 19:30



법상스님의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매주 (목, 금, 토) 08:30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
매주 (목, 금, 토) 16:00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매주 (목, 금, 토) 19:30

BTN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